



## 고성명태축제 27일 ‘팡파르’

고성군 전역 축제 분위기 달아올라 ... 개막식 27일 오후 5시

명태를 테마로 한 우리나라 유일의 축제인 제13회 고성명태축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거진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는 축제를 알리는 배너기와 각급 기관사회단체들의 환영 플래카드가 나부끼면서 축제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직원들과 명태축제위원회 위원들은 명태축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3년 만에 개최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만큼, 이번 축제를 그 어느 해보다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각오로 밤잠을 설치며 완벽한 축제운영을 위해 막바지 점검에 나서고 있다.

운영락 명태축제위원장은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다”며 “전국에

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성군민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행사장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성명태는 행운이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7일 오전 11시 간성읍 수성제단에서 열리는 제례행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라 30일까지 나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성명태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게 된다.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메인무대에서 김수희와 송대관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또 명태 골든벨, 명태덕장 전시장, 선상낚시 체험, 가족쪽배끼기대회, 가족사랑 풍등날리기 등의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된다.

특히 고성명태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명태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도 선보인다. 포를 떠서 부치는 명태전, 무와 파를 많이 넣고 국을 끓여 시원하고 구수한 명태지리국, 내장과 알로 만든 창란젓과 명란젓 등을 맛볼 수 있다.

첫째날인 27일에는 제례행사에 이어 식전공연으로 풍어제, 사물놀이가 열린다. 개막식은 오후 5시에 열리고, 식후 행사로 육군군악대 초청공연과 예술단체 초청공연이 열린다. 이어 저녁 7시부터는 어선불꽃놀이와 함께 노래세상 공연이 진행된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명태골든벨, 관태체험, 명태 투호체험, 명태요리시식회 등 명태 관련 체험행사와 가족쪽배끼기체험, 활어다트게임, 활어맨손잡기, 가족

낚시체험 등 향구문화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또 가족사랑 풍등날리기, 활어가면 만들기, 매직비누방울 등 가족체험행사와 길거리 비보이 공연, 7080낭만콘서트, 댄스공연, 행운권 추첨, 어촌장터 등의 다양한 공연 및 이벤트를 편성해 마지막날까지 거진항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제13회 고성명태축제는 기존 축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가족단위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축제의 성공을 위해 지역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아아진지구 5층이상 공동주택 불허

고성군관리계획(안)에 ‘제2종주거지역’ 지정 안해

S주택산업 “인구유입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진정  
 고성군 관계자 “난개발 막기 위해 지정하지 않았다”

고성군이 최근 토성도시지역의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토성도시지역 내 아아진지구에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인구유입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토성도시지역 가운데 아아진지구는 현재 유진클래시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 안이 확정되면 아아진지구에서는 앞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아파트 등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009년부터 아아진 자동차 학원 뒤편(청간, 사진)에 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S주택산업은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이 허가돼 도시관리계획 이전 단계인 도시기본계획까지 반영됐었다”며 “조만간 아파트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난 9월 1일자

S주택산업이 지난 19일 해당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고성군에 제출했다.

S주택산업은 진정서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고성군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아진지구 관리계획을 공람한 결과 제2종주거지역이 하나도 없었다”며 “이는 고성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역행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했다.

S주택산업은 또한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이 허가돼 도시관리계획 이전 단계인 도시기본계획까지 반영됐었다”며 “조만간 아파트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난 9월 1일자



2009년부터 아아진 자동차 학원 뒤편(청간, 사진)에 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S주택산업이 지난 19일 해당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고성군에 제출했다.

로 담당 부서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관리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S주택산업 관계자는 “100% 서민용 아파트를 지어 고성군의 인구유입정책에도 부응하려는 것이 우리의 취지”라며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제외시키고는, 강원도에 가면 6개월이면 공동주택을 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

고, 그 지역을 제2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서로 지정해 달라고 할 소지가 있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2종주거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강원도에 가면 6개월이면 공동주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도에서는 우리가 올린 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거기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인크젯·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